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태 림

2019年 2月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남 진 열

이 태 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이태림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년 12월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on Child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in Jeju Area.

Lee, Taelim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19.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태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척도와 자녀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였고 부모교육 특성을 묻는 항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회수된 총 227부의 설문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χ^2 검증, t-test와 ANOVA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종학력에 따른 정서적 방임과 자녀수에 따른 전체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 연령대에 따른 부모교육 경험, 첫 부모교육 시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집단별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방임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및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전체 양육태도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그리고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이는 부모교육 인식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전체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교육 시기가 출산 후보다 출산 전에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부모의 정서적 외상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모교육 특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 제언과 연구의 한계성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아동학대, 가정폭력, 자녀양육태도, 부모교육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정서적 외상경험	6
1) 정서적 학대	7
2) 정서적 방임	9
3) 가정폭력 노출경험	10
2. 부모교육	11
3. 자녀양육태도	14
4. 정서적 외상경험, 부모교육, 자녀양육태도 간의 선행연구	18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모형	20
2. 연구가설	21
3. 측정도구의 구성	24
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8
5. 분석방법	29
IV. 연구결과	30
1. 연구대상자의 특성	30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 분석	33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의 차이	35
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41
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3
6.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6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50
V. 결론 및 제언	53
1. 연구결과 요약	53
2. 연구의 제언	56
3. 연구의 한계	58
참고문헌	59
<부록> 설문지	73

표 목 차

<표 1> 설문지의 구성	24
<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신뢰도 검증	26
<표 3> 자녀양육태도 신뢰도 검증	28
<표 4> 연구대상자의 특성	30
<표 5> 부모교육 인식 정도 및 불참사유	32
<표 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	33
<표 7> 성별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35
<표 8> 연령대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36
<표 9> 최종학력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37
<표 10>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38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 차이	39
<표 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분석	41
<표 1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3
<표 1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4
<표 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5
<표 16>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6
<표 17> 부모교육 특성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8
<표 18> 부모교육 특성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49
<표 19>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50

그림 목차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16
[그림 2] 연구모형	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한다. ‘잘 키운다’라는 뜻은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자녀의 양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주변인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옛말을 살펴보면 ‘미운아이 떡 하나 주고, 예쁜 아이 매 하나 더 때린다’, 또는 ‘매를 아끼면 자식 버릇 못 고친다’(김은주 외, 2006) 등 귀한 자식일수록 엄한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가부장권(家父長權)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연스럽게 폭력민감성이 낮아지며 폭력을 수용하는 문화로 이어져 왔으며, 2018년을 살고 있는 현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을 포함하여 자연재해, 사건 및 사고를 포함한 사회적인 위험, 각종 폭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차적인 사회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크게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부부싸움의 목격·노출경험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 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의 입장에서 이러한 폭력경험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심리적·신체적인 외상경험이 된다. 아동기 외상경험의 영향에 대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는 학대후유증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Talley 등(1994)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빈도와 아동학대 경험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

고 Devanarayana 등(2014)은 십대의 소화기계 질환과 아동학대의 관련을 보고하였으며 Rajindrajith 등(2014)은 변비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및 성학대의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심리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먼저 Shields 와 Cicchetti(1998)는 외상경험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기가 쉽다고 하였고 Lyons Ruth 등(1990)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성의 문제가 발현된다고 하였으며, Salzinger 등(2001)은 반사회적 행동과 교우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Allen, 1982; Culp et al., 1991; Fox et al., 1988; Gowan, J. 1993)고 하였으며, 안동현 외(2003)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감, 내재화된 공격성 등 보다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경숙(2008)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하였다.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아동은 높은 불안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분노와 기질상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청소년 폭력 비행행동의 가능성인 성적도발, 스톨을 추구하는 행동, 약물남용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 반복적인 가출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타인에 대한 높은 공격성 및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dleson, 1997; Everstine & Everstine, 1993; 김재엽 외 2013; 김정옥·장덕희, 1999; 신복기·이성진, 2012; 이아영·유서구, 2011; 장희숙, 2000; 조성상·이서원, 2006). 또한 김환과 한수미(2015)는 아동학대의 경험이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아동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경험한 성인에 대한 연구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연구(Laner & Thompson, 1982; Riggs, et al, 1990; 이미선·김하나, 2015 재인용)와 폭력이나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Bolger & Patterson, 2001; Voorthuis, et al., 2014; 김예정·김득성, 2006; 김재엽 외, 2007; 노충래·김현경, 2004; 조춘범·조남홍, 2011)가 있으며 피학대 경험이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최옥순, 200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이 겪은 외상경험은 폭력에 둔감하게 되고 폭력감수성을 떨어뜨리며 한 사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학대

의 후유증은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기혼남성의 가정폭력 가해경험을 심층 분석한 연구(이인선 외, 2017)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비율은 23.2%,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8.9%,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32.2%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15.4%,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4.0%,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성인기 가정폭력 피해 또는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배우자 폭력의 피해 혹은 가해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로 전이(Buzawa, et al., 2017)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6.8%가 아동의 부모이며 중복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44.9%) 유형이 가장 높고 학대행위자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양육에 동참을 하였지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 부부자녀가정, 한가정, 미혼 부·모가정, 조손가정, 미성년가정, 이혼가정, 다문화 가정, 동거가정 등 - 에서의 양육은 주양육자인 부모가 전담하게 되었으며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출생의 기쁨도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에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김희경, 2017).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경험했던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Belsky & Vondra, 1993; Fincham, 1994; 권영임, 2011 재인용; 성미혜·주경숙, 2007; 이진선·정문자, 2007; 전현진·박성연, 1999). 이세현 외(2018)는 지난 15년간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대발생률이 낮아지고 부정적 양육태도일 때 학대발생률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정리하면 부모 자신의 아동기 시절 긍정·수용·애정·자율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한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거부·통제·폭력 등의 양육경험을 한 부모들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부모의 권리로 여기고 엄한 훈육과 체벌을 사용하며 학대로 인식하지 못한다(송은주, 2006).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학대를 행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Silverman & Rugusa, 1992; 김상미·남진열, 2011; 김인순, 2002). 결국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를 행하게 된다. 가정의 고유한 기능은 상실되어 폭력이 학습되고 훈련하는 장소가 되면서 부모의 경험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Belsky & Vondra, 1993; 박미옥, 2012; 서인원, 2015; 정혜정, 2003)이 발생한다. 이와 반면에 양육자가 아동기에 외상경험과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경험했어도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김복자(2016)의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주양육자인 부모는 자신의 아동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밑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해야 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에 자녀양육법을 습득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부모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송정해 외, 2008). 이영석 외(2005)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요구, 양육경험의 본보기나 기준의 부재, 부모와 자녀 요구의 조화를 위한 부모의 전문적 역량강화 등을 부모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한다(고경필, 2017).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윤혜영, 2006)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발생율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김길숙, 2017). 따라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부모교육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교육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의 증가로 최근 5년 평균 2.78%의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아동납치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국최초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선포하며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

여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영역에서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정서적 학대는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정서적 방임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은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부모교육 유형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부모교육 횟수는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3. 부모교육 시기는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4. 부모교육 인식은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정서적 외상경험

외상(外傷, trauma)이란 의학용어로서 몸의 곁에 생긴 상처를 통틀어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로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생긴 심리적인 상처까지도 포함한다. 외상은 발생횟수에 따라 지진, 해일, 산사태,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등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일회성 외상과 부모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어진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인 반복적 외상이 있다(Allen, 2005; 권석만, 2003). 또한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 인간 외적인 외상, 대인관계 외상, 애착외상으로 나뉜다. 이 중 애착외상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심리적 상처로, 대부분 가정 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학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성폭행을 포함한 성적학대 등을 말한다(Bernstein et al., 2003; 허남순, 1993). 안현의(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폭력성격을 나타내는 외상을 복합외상이라고 하였고 아동기 학대피해, 가정폭력의 피해, 포로경험, 난민경험,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피해, 탈북자의 외상경험, 군복무 부적응자, 학교폭력 피해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외상은 개인과 의존적 관계에서 고의로 타격을 주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외상이라고 하였다(Allen, 1995; 이승주,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경험을 아동학대의 유형¹⁾ 중에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한정한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1) 정서적 학대

(1) 정서적 학대의 개념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로 정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한 복지차원의 광의적 개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 중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행위로는 원망·거부·적대적 또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대한의사협회, 2006).

먼저 선행연구를 통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McGee(1991)는 정서적 학대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아동에게 취약성을 야기하며 심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Steels(1980)는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경멸, 모독하며 책임의 전가, 신체적 위협 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거부적 학대의 형태라고 하였다. 또한 고성혜(1992)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知的)불구로 만들고,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이라고 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폭언·무시·모욕 등과 같

은 언어폭력과 체벌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였다(Kempe et al., 1962; 김에스터, 2018 재인용). 이 밖에도 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자르는 행위, 아동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에게 배우자를 헐뜯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즉, 정서적 학대는 주양육자인 부모가 언어 또는 행동을 통하여 아동에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 아동의 인격손상 및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지만, 정서적 학대 피해는 겉으로 보이는 상해나 손상이 거의 없어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2017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분포에서 정서적 학대가 15,346건(44.19%)으로 가장 많았고, 2가지 이상의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중복학대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 정서적 학대의 영향

정서적 학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외상은 다양한 행동적·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하였다(McGee et al., 1997; Mullen et al., 1996; 김은정·김진숙, 2008). 김재엽과 양혜원(1998)은 신체화 증상과 정서적 학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신체적 건강문제인 알레르기, 천식, 호흡기 질환, 고혈압, 발달지연 등과의 관련을 밝혔다(Bowlby, 1951; Burlingham & Freud, 1944; Coleman & Provence, 1957).

Briere와 Runtz(1988)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과 우울증, 도벽, 거짓말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분노와 적개심 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Browne & Finkelhor, 1986)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기비하 등 내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Briere & Runtz, 1988; Caples & Barrera, 2006; Clausen & Crittenden, 1991; Egeland & Erickson, 1987; Finzi-Dottan & Karu, 2006). 또한 내재화된 공격성(안동현·강지윤, 2003)과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보고하였다(김혜인 외, 2012). 하수홍과 장문선(2013)은 성인기 경계성 성격형성

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 피해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보고하며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경계선, 회피성 성격장애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권지은 외, 2012). 또한 정서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장기적인 심리적 기능 손상과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Mullen et al., 1996; 한지은, 2013 재인용).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가시적인 증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의 영향은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아동의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정서적 방임

(1) 정서적 방임의 개념 및 영향

정서적 방임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심리적 필요, 즉 사랑과 소속감, 양육과 지지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이유경, 2006), 아동에게 관심이 없는 양육자의 태만 또는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방임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참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훈육의 부재는 아동의 공격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되고(Arnold et al, 1993), 아동이 규칙이나 기대를 명확히 배우는 데 방해가 되어 부적절한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김현정, 2001).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임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좌절된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여 유아가 불안정한 애착과 대인관계 표상을 갖게 하고, 자기통제와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져 공격성에도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강기숙·이경남, 2001; 박미진·강지현, 2012; 윤진주 외, 2005; 이성복·신유림, 2010). 또한 방임된 유아는 발달지연, 우울 및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도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명재·방희정, 2014).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을 연구한 김홍석(2017)은 정서적 학대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심하게 야단을 쳐서 기를 꺾는 행위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동의 정서학대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3) 가정폭력 노출경험²⁾

(1)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서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Straus et al., 1996; 조영조, 2012 재인용)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를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부부간의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과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인선 외, 2017)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로 한정하여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영향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Hughes et al., 1989; O’Keefe, 1994; 신혜섭, 2000; 양혜원·전명희, 2001). 구체적인 징후로는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언어문제, 야뇨증, 불면증, 우울증, 자살, 공포, 수면거부(Markward, 1997; 정인숙, 2003 재인용)과 자존감 저하, 정체성 문제, 대처능력, 낮은 학업성취도 및 높은 자살 충동률 등의 정신적 문제의 유발(Belt & Abidin, 1996; Bolger & Patterson, 2001; 김은주·조정미, 2011, 재인용)과 적응행동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Graham-Bermann & Levendosky, 1998; 박언주, 2013)이 있으며 학교 폭력과도

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목격경험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재엽 외, 2013; 김정옥·장덕희, 1999; 장희숙, 2000). Edleson(1997)은 높은 수준의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분노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박연주, 2013 재인용). 격렬한 부부갈등을 목격한 아동은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무력감이 더해져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Grych & Fincham, 1993; Long et al., 1988)가 있으며 Feldman과 Downey(1994)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초기 성인기의 높은 거부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홍기순(2008)은 아동기 가정폭력 유경험 성인은 자신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알코올 및 약물중독, 우울증,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Kwok et al., 2013; 나은숙·정익중, 2007). 종합하면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의 행동을 지배하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김홍석(2017)은 제주도에 거주중인 초등학교 아동의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며 아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국 22,367건 중 344건으로 전체의 1.35%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3월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부모교육

1)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아동학회(1989)는 ‘부모교육이란 부모역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고 한국부모교육학회(1997)에서 부모교육이란 ‘역할 인식과 역할수행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적 활동을 유도하여 부모가 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하며, 자녀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경험’이라 하였다. 이순형 외(2010)는 부모교육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

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신용주와 김혜수(2002)는 '부모가 부모역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Becher(1982)는 '부모교육을 부모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직화된 행동'으로 보았으며 Harman과 Brim(1980)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부모교육의 개념이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볼 때 부모교육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의식주를 제공함은 물론, 애정과 사랑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른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며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질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종류

현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되는 부모교육에는 체계적 부모효율성 훈련프로그램(STEP),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PT), 부모효율성 훈련프로그램(PET),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1995)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조경란 외, 2013)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김길숙, 2017). 부모교육의 방법에도 교수자 주도의 강의식에서 토의식, 집단상담, 부모코칭 등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3) 부모교육의 효과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먼저 부모교육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김경화, 2003; 김진이, 2006; 양미진 외, 2010; 정교영, 2011). 이현림 외(2007)는 부모의 태도 및 자녀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김상언(2015)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 중심적 경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호균 외(2001)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김윤희(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이수 후 만족한 결과가 있었으며 김수진(2016)은 부모교육 경험을 한 부모들보다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들이 많았으며,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요일, 시간이 부모교육 참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보고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연구에서 김홍석(2017)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여부를 확인하며 구체적인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좋은 부모교육이 많아도 부모들의 관심부재를 제시하면서 ‘부모교육의 참여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부모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연구와 개별 부모의 삶을 돌아보고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김미숙, 2013). 또한 부모교육을 받았으나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찰되지 않았다면 이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모 자신의 문제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부모교육 이전의 양육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Didier, 2008; Iacoboni, 2009; 조형숙·김명하, 2013 재인용).

이렇듯 부모교육은 성공적인 자녀양육 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역할이 점점 물질적인 지원자로 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3. 자녀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가정은 아동이라는 한 사람이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관계 내에서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다. 자녀는 주 양육자인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태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익히고 성장하며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국성민, 2007).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양식(국립특수교육원, 2009)으로 같은 개념으로는 양육행동, 양육신념, 양육 스타일 등의 여러 용어들이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다(이숙희 외, 2009).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Spencer와 Spencer(1993)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교육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또는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Smith(2003)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해진 문화 내에서 키우고 교육하는 행동의 경향성 또는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원영(1983)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라고 정의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 사회적인 변화로 점차 부모 또는 아버지, 조부모 등 양육자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어머니의 취업관련,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인권의식,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등이 있으며 그 중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숙(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 자아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정감 및 성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Bowlby(1971)는 아동기 시절 어머니와의 경험에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유형이 내재화되고 이후 다양한 인간관계에 영향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현진(1998)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행동에 관련한 연구에서 독립·수용적인 양육을 경

험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높은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아동기 시절 긍정적인 양육경험이 있는 자녀는 부모가 되었을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권영임, 2012; 이숙희 외, 2009; 이진민, 2011) 양육태도의 세대 간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장영심·조영숙, 2014).

종합하면, 부모는 자녀의 생애초기 인간관계의 대상으로 자녀는 부모의 모습과 태도, 가치관 등을 통해 자신의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성장하여 부모가 되어서까지 그 영향이 지속됨을 추측할 수 있으며 아동기의 경험은 자신의 양육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2) 자녀양육태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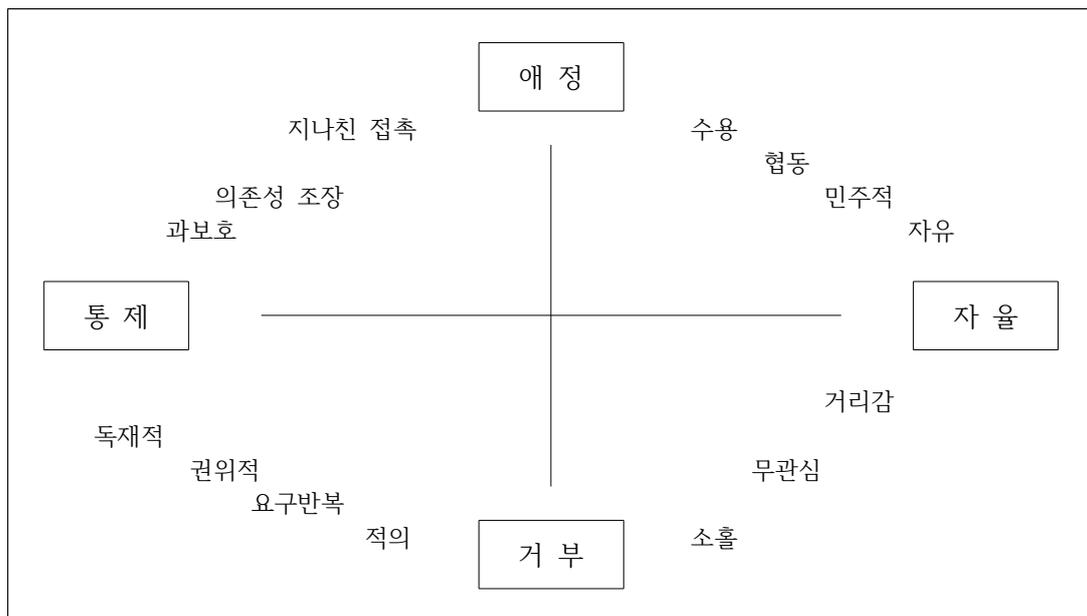
양육태도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Symonds(1949), Schaefer(1959), Becker(1964), Baumrind(1967) 등이 있다. Symonds(1949)는 처음으로 양육태도의 체계화를 구축한 학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이라는 두 개의 큰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이지윤, 2017 재인용). Becker(1964)는 수용-거부, 심리적 자율-심리적 통제, 확고한 통제-느슨한 통제라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민주적 양육태도, 관대한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 초조한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조직적 양육태도 마지막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으며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국성민, 2008),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는 Schaefer(1959)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적대적, 거부적-수용적, 외향적-내향적, 의존적 조장-독립적 조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부정적, 의존성-독립성의 7가지 태도 요인으로 분류한 이원영(1983)의 연구가 있다. 김재은(1987)은 가족형태를 화목-불화 가정, 허용-엄격한 가정, 친애-소원형 가정으로 분류하였고, 이숙(1988)은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실제로 조사하고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적인 참여, 과보호, 성취, 일관성 있는 규제로 나누었다. 허묘연(2000)은 한국적인 독특한 양육행동 요인을 연구하여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로 구분된 양육방식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지윤(2017)은 양육태도를 크게 애정적, 통제적, 긍정적, 부정적인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많은 모형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Schaef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아동의 출생부터 초기청년기까지의 30여년 동안을 기록하며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두 개의 차원 즉, 애정-거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양육태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장은주, 2018 재인용). 다음의 [그림 1]은 Schaefer의 양육태도의 네 가지 모형이다(우정희, 2002)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1965)



출처 : 우정희, 2002

1)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애정적·민주적·자율적·허용적·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지적수준이 높고 능동적, 외향적, 독립적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

2) 애정적-통제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제약과 통제를 하는 엄격한 양육태도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심리적 과보호, 체벌과 행동 및 언어 등을 제한하는 태도로 부모의 경험을 통해 자녀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자녀가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사교성과 창의력이 적고 적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원영(1983)은 애정적-통제적 태도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과보호적 태도의 성향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3)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동시에 하면서 자녀의 행동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무관심, 냉담함, 거리감, 태만과 방임하는 태도이다. 이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소극적인 태도 등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보이며, 심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4)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애정-자율적 양육태도와 정반대인 양육태도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균립하고 자녀를 수용, 용납하지 못하며 자녀의 행동을 체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부모의 기분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경험한 자녀는 분노, 내적 갈등과 고통, 불순종, 반항, 퇴행, 자학 등의 행동양식과 방어기제인 거짓말,

정신적인 문제가 발현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감의 결여를 비롯해 독창성과 주체성이 결여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고후순, 1985).

4. 정서적 외상경험, 부모교육, 자녀양육태도 간의 선행연구

독립변수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부모의 아동기 시절 친모에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거부 또는 과보호적으로 대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이정희, 1986), 자녀를 부정적인 태도로 대한다(이진선·정문자, 2007). 또한 아동기 학대외상을 해결하지 못한 성인은 부모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부정적인 정서, 우울, 고립감을 느끼고,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이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다(Leon & Hazen, 2004; 이승주, 2010 재인용). 특히 부모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적대적인 양육태도 보이고, 신체적인 학대 경험은 통제적 양육태도를 방임의 경험은 안일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승주, 2010). 이러한 학대경험은 양육자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감소시킨다(이승주, 2010; 김복자, 2016). 양인화(2016)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일수록 학대가 낮아지고 부정적인 양육태도일수록 학대 발생이 많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 처벌적인 양육태도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김지연, 2001; 이세현 외, 2018). 이렇듯 부모가 어린시절에 겪었던 아동학대를 비롯한 외상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대를 거듭해서 전이가 되는 특성이 있다(김정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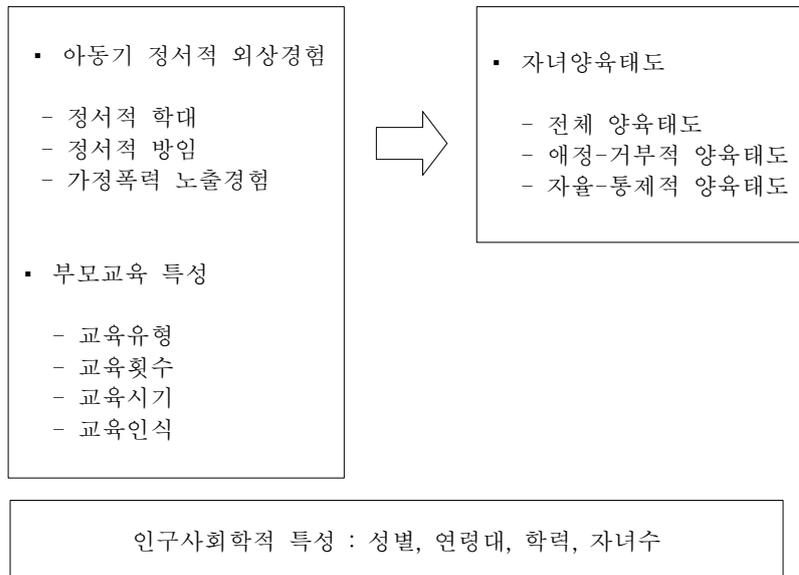
독립변수인 부모교육과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강경애, 2010; 김미숙, 2013; 김성숙, 2012; 신성희·원정숙, 2009; 안유자, 2000; 여순화, 2018; 예소현, 2004; 이명순, 2009 ;이재림 외, 2013; 조경란 외, 2013; 최우미, 2015). 또한 부모역할 훈련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되고 자녀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공병진, 1992; 김재연, 1992; 이동천, 1993)도 있었다. 김성자와 이미숙(2003)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문제행동 수정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아동기 시절 겪었던 외상경험과 양육태도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양육태도에 있어서 긴밀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한정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인 부모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이 특성이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그리고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첫 번째 독립변수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독립변수인 부모교육 특성은 부모교

육을 받은 유형, 횟수, 시기,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등 4가지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Schaefer(1959)가 제안한 양육태도에 대한 모형을 근거로 하여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를 기초로 전체 양육태도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자율-통제적 양육태도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대, 학력, 자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연구대상자의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은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7.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9.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0.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항목과 부모교육의 특성 관련 7개 항목, 자녀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31개 항목,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	세부항목	척도	문항
정서적 외상 경험	I-1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름	4점척도	15
	I-2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존재의 부정)		
	I-3	미워하는 사람을 느낌		
	I-4	모욕적인 언사와 심한 말		
	I-5	정서적 학대 인식		
	I-6*	사랑받음		
	I-7*	소중한 존재		
	I-8*	가족의 친밀함		
	I-9*	가족의 지지		
	I-10*	가족의 배려		
가정폭력 노출경험	II-11	모욕적인 언사와 심한 말		
	II-12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찰		
	II-13	뺨을 때림		
	II-14	물건으로 때림		
	II-15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부모교육 특성	IV-1	부모교육 경험	5점척도	7
	IV-2	부모교육 형태		
	IV-3	부모교육 횟수		
	IV-4	부모교육 받은 시기		
	IV-5	부모교육 인식		
	IV-6	부모교육 적절 시기		
	IV-7	부모교육 미참가 이유(기타)		

* 은 역문항임.

<표 계속>

구분	문항	세부항목	척도	문항	
애정적 양육태도	Ⅲ-1*	자녀의 방식으로 놀아줌	5점척도	31	
	Ⅲ-2*	자녀가 도움을 원할 때 도움			
	Ⅲ-3*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움			
	Ⅲ-4*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음			
	Ⅲ-5*	자녀를 존중하고 대화함			
	Ⅲ-6*	애정표현을 잘 함(포옹 등)			
	Ⅲ-7*	자녀의 행동, 성취한 일에 관심			
	Ⅲ-8*	자녀의 존재를 기쁘다고 말함			
	Ⅲ-9*	자녀의 흥미, 관심거리에 자주 대화하고 도움을 줌			
	Ⅲ-10*	자녀의 문제행동에 타인에의 의논, 도움을 받음			
	Ⅲ-12*	양육지식에 대한 교육에 참석			
	Ⅲ-28*	외출 시 동반			
자녀 양육 태도	Ⅲ-30*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	5점척도	31	
	Ⅲ-31*	자녀가 아플 때 함께 지냄			
	Ⅲ-11*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면 내버려 둠			
	자율적 양육태도	Ⅲ-13*			자녀가 타인들과 잘 사귀다고 생각함
	Ⅲ-14*	자녀가 할 수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게 함			
	Ⅲ-15*	자녀행동에 자유를 줄 용의가 있음			
	Ⅲ-16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			
	Ⅲ-17	자녀 요구 무시			
	Ⅲ-18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남			
	거부적 양육태도	Ⅲ-19			자녀의 행동을 참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침
		Ⅲ-20			자녀의 행동 및 태도 중 고칠 점이 많음
		Ⅲ-21			자녀양육을 다른 사람이 해 주길 바람
Ⅲ-22		직장, 일이 권태롭거나 지겹다고 생각함			
Ⅲ-23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말함			
Ⅲ-24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통제적 양육태도	Ⅲ-25	자녀의 생각은 부모가 알고 있어야 교육할 수 있음	5점척도	31	
	Ⅲ-26	가정 내 규칙, 규율을 설정함			
	Ⅲ-27	자녀가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도움			
	Ⅲ-29	취침시간에 자도록 엄격히 함			

* 은 역문항임.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측정은 Berstein & Fink(1998)에 의해 개발되고, 이유경(2006)과 김은정(2009)에 의해 번안되고 타당성을 확보한 아동기 외상질문지 단축형(CTQ :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전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을 폭넓게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도구로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그리고 성적 학대의 5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위 요인인 정서적 학대 요인과 정서적 방임 요인을 사용하였다. ‘전혀 없음(0)점’, ‘드물게 있음(1)’, ‘가끔 있음(2)’, ‘자주 있음(3)’으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정서적 방임은 0점 방향이 부정적으로 역채점을 한 후 다시 1점부터 4점으로 점수 변경을 하였다. 또한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에 의해 고안되어 활용된 갈등관리행동척도(CTS: The Conflict Tactics Scale)를 근거로 오혜정(2004)의 선행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된 10개 항목 중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0$ 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에서 정서적 학대 Cronbach's $\alpha = .814$, 정서적 방임 Cronbach's $\alpha = .938$,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Cronbach's $\alpha = .853$ 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학대	5문항	.814
정서적 방임	5문항	.938
가정폭력 노출경험	5문항	.853
전체 문항 수 및 전체 신뢰도	15문항	.900

주) 정서적 방임은 역문항임

2) 부모교육 특성

본 연구의 부모교육 특성에 대한 부모교육의 일반적 견해를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윤명선, 1990; 정인오, 1993; 이은경, 1995)를 기초로 윤은혜(2013)와 최지현(2016)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 문항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항목을 도출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경험 유무, 부모교육의 유형, 부모교육의 참여횟수,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및 적절 시기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 참여 후 도움이 된 인식 정도, 부모교육 불참 사유 등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부모교육 인식정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터 ‘아주 도움이 되었다’ 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은 명목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녀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로서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만든 양육태도 검사 도구를 기초로 국성민(2008)이 수정 및 보완하고 장은주(2017)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태도를 애정-거부축과 자율-통제축으로 제한하여 4개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이루어진 31개 문항을 ‘아주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1점(아주 그렇다)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측정 점수를 역채점을 하였고,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1점(아주 그렇다)이 부정적 태도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였다.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의 문항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양육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 유형으

로 해석하였다. 국성민(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03이었고 장은주(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녀양육태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58으로 변인의 각 하위요인마다 애정적 양육태도 Cronbach's α =.843, 거부적 양육태도 Cronbach's α =.802, 자율적 양육태도 Cronbach's α =.630, 통제적 양육태도 Cronbach's α =.626 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녀양육태도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 수	신뢰도
애정적 양육태도	14문항	.843
거부적 양육태도	8문항	.802
자율적 양육태도	4문항	.630
통제적 양육태도	5문항	.626
전체 문항 수 및 전체 신뢰도	31문항	.858

주) 애정, 자율적 양육태도는 역문항임

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241부가 회수되어 75.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27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각 변수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부모교육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T-test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ANOVA(일원분산분석)를 실시하였고 부모교육 특성에 대한 집단 간 분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자녀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 형태, 부모교육 횟수, 첫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적절시기에 관한 부모교육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7	11.9	부모교육 경험	없다	68	30.0
	여성	200	88.1		있다	159	70.0
	소계	227	100.0		소계	227	100.0
연령대	20대	9	4.0	부모교육 유형	1회성 특강	142	89.3
	30대	143	63.0		2-3회 이상 지속프로그램	17	10.7
	40대	73	32.2		소계	159	100.0
	50대 이상	2	0.9		1회	26	16.4
	소계	227	100.0		2-3회	79	49.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3	14.5	부모교육 횟수	4-5회	31	19.5
	전문대 졸업	62	27.3		6회 이상	23	14.5
	대학교 졸업	120	52.9		소계	159	100.0
	대학원 이상	12	5.3		자녀출산 전	54	34.0
	소계	227	100.0		자녀출산 후	105	66.0
자녀수	1명	56	24.7	첫 부모 교육시기	소계	159	100.0
	2명	116	51.1		자녀출산 전	124	78.0
	3명	46	20.3		자녀출산 후	35	22.0
	4명 이상	9	4.0	부모교육 적절시기	소계	159	100.0
	소계	227	100.0				

주) 부모교육 유형/횟수/첫 부모교육 시기/적절시기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응답함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먼저 여성이 200명(88.1%)으로 남성(27명, 11.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가 143명(6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73명(32.2%), 20대 9명(4.0%), 50대 이상 2명(0.9%)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 여부에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이 120명(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62명(27.3%), 고졸 이하 33명(14.5%), 대학원 이상 12명(5.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2명의 자녀가 116명(51.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1명의 자녀가 56명(24.7%), 3명의 자녀 46명(20.3%), 4명 이상이 9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은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하며,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68명, 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부모교육 형태에 대한 응답은 1회성 특강을 참여한 인원(142명)이 전체의 89.3%로 2-3회 이상 지속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17명, 10.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는 2-3회가 79명(4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5회 31명(19.5%), 1회 26명(16.4%), 6회 이상 23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출산 후가 105명(66.0%)으로 자녀출산 전 54명(34.0%)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다. 반면 부모교육을 언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적절 시기에 대한 항목에서는 자녀출산 전이 124명(78.0%)으로 자녀출산 후 35명(22.0%)보다 높은 의견을 보였다.

한편, 부모교육에 참가한 뒤 자녀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와 부모교육에 불참한 사유는 다음 <표 5>와 같다. 부모교육 인식정도는 ‘도움됨’ 68.6%(109명), ‘아주 도움됨’ 20.1%(32명)로 긍정의 응답이 88.7%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불참사유는 시간부족(37명, 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부족(24명, 35.3%)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부모교육 인식 정도 및 불참 사유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부모 교육 인식 정도	아주 도움됨	32	20.1	부모 교육 불참 사유	도움안됨	4	5.9
	도움됨	109	68.6		시간부족	37	54.4
	그저 그렇	17	10.7		정보부족	24	35.3
	전혀도움안됨	1	0.6		기타	3	4.4
	소계	159	100.0		소계	68	100.0

주) 부모교육 인식정도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응답하였으며, 부모교육 불참사유는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응답함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 분석

응답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들과 자녀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인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전체 평균은 1.45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 노출경험,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의 순서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정서적 학대는 전체 평균(M=1.45) 이하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방임의 경우 1.65로 전체 평균(M=1.45)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

구분		M	SD	최소값	최대값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적 학대	1.42	.559	1.0	4.0
	정서적 방임	1.65	.774	1.0	4.0
	가정폭력 노출경험	1.28	.479	1.0	4.0
	전체	1.45	.480	1.0	3.5
자녀양육 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4.12	.420	3.1	5.0
	자율적 양육태도	3.84	.532	2.8	5.0
	거부적 양육태도	3.53	.553	2.1	5.0
	통제적 양육태도	2.98	.543	1.4	4.8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82	.430	2.9	4.7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41	.366	2.8	4.7
	전체	3.62	.329	2.9	4.3

주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혀 없음' 1점, '드물게 있음' 2점, '가끔 있음' 3점, '자주 있음' 4점으로 측정함

주2) 자녀 양육태도는 '아주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의 경우 측정점수를 역채점하여 '아주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변환함

다음으로 자녀양육태도의 전체 평균은 3.62로 나타났으며,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애정적 양육태도 4.12, 자율적 양육태도 3.84, 거부적 양육태도 3.53, 통제적 양육태도 2.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애정-거부적 양육태도는 3.82,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41, 그리고 전체 양육태도는 3.62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의 차이

1) 성별

성별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의 차이

구분		남성 (N=27)		여성 (N=200)		t	p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33	.412	1.43	.575	-.943	.347
	정서적 방임	1.67	.580	1.64	.797	.196	.845
	가정폭력 노출경험	1.27	.419	1.28	.487	-.050	.960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4.02	.450	3.89	.408	1.500	.135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43	.424	3.35	.361	1.026	.306
	전체 양육태도	3.71	.353	3.60	.324	1.605	.110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의 표본이 여성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정서적 방임은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연령대

연령대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에 앞서 20대와 50대 이상의 빈도가 낮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8> 연령대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구분	30대 이하 (N=152)		40대 이상 (N=75)		t	p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42	.545	1.41	.589	.148	.883
	정서적 방임	1.61	.756	1.73	.8.6	-1.113	.267
	가정폭력 노출경험	1.29	.464	1.25	.511	.553	.581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90	.427	3.90	.390	.140	.889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37	.372	3.35	.364	.487	.627
	전체 양육태도	3.62	.331	3.61	.327	.223	.824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모두 연령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의 경우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전체 양육태도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최종학력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분석에 앞서 대학원 이상의 표본의 빈도가 낮아 대학 졸업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9> 최종학력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구분	고졸이하 (N=33)		전문대 졸업 (N=62)		대학 졸업이상 (N=132)		F	p	
	M	SD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42	.431	1.46	.584	1.40	.577	.267	.766
	정서적 방임	1.95	.936	1.75	.813	1.52	.684	4.808**	.009
	가정폭력 노출경험	1.32	.371	1.35	.556	1.23	.462	1.553	.214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89	.445	3.88	.450	3.91	.390	.093	.912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35	.390	3.31	.335	3.38	.379	.790	.455
	전체 양육태도	3.61	.359	3.59	.325	3.63	.324	.405	.667

**p<.01

분석결과, 정서적 방임을 제외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는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정서적 방임(F=4.808, p=.009)은 p <.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고졸이하 집단이 대학 졸업이상 집단보다 정서적 방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방임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분석에 앞서 4명 이상의 자녀수를 가진 표본의 빈도가 낮아 3명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10>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차이

구분	1명 (N=56)		2명 (N=116)		3명 이상 (N=55)		F	p	
	M	SD	M	SD	M	SD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적 학대	1.40	.491	1.44	.587	1.41	.572	.100	.905
	정서적 방임	1.50	.674	1.68	.790	1.72	.828	1.311	.272
	가정폭력 노출경험	1.31	.558	1.27	.472	1.26	.409	.142	.868
자녀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3.98	.363	3.92	.442	3.80	.387	2.916	.056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3.42	.366	3.37	.387	3.28	.324	1.941	.146
	전체 양육태도	3.68	.285	3.63	.362	3.53	.281	3.125*	.046

*p<.05

자녀수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서 전체 양육태도 (F=3.125, p=.046)는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부모교육 특성

부모교육 특성이 부모의 성별과 연령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와 같다. 분석에 앞서 부모교육 횟수를 3회 이하와 4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진행하였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 차이

구분	부모교육경험 (N=227)		χ^2 Sig	부모교육유형 (N=159)		χ^2 Sig	부모교육횟수 (N=159)		χ^2 Sig	첫부모교육시기 (N=159)		χ^2 Sig	부모교육적절시기 (N=159)		χ^2 Sig	
	없음	있음		1회성 특강	2-3회 프로 그램		3회 이하	4회 이상		자녀 출산 전	자녀 출산 후		자녀 출산 전	자녀 출산 후		
성 별	남성	12 (5.3)	15 (6.6)	3.066	14 (8.8)	1 (0.6)	.281	12 (7.5)	3 (1.9)	1.440	6 (3.8)	9 (5.7)	.269	13 (8.2)	2 (1.3)	.727
	여성	56 (24.7)	144 (63.4)	.080	128 (80.5)	16 (10.1)	.596	92 (58.5)	51 (32.1)	.230	48 (30.2)	96 (60.4)	.604	111 (69.8)	3 (20.8)	.394
연 령 대	30대 이하	54 (23.8)	98 (43.2)	6.803**	88 (55.3)	10 (6.3)	.064	66 (41.5)	32 (20.1)	.195	39 (24.5)	59 (37.1)	3.876*	72 (45.3)	26 (16.4)	3.037
	40대 이상	14 (6.2)	61 (26.9)	.009	54 (34.0)	7 (4.4)	.801	39 (24.5)	22 (13.8)	.659	15 (9.4)	46 (28.9)	.049	52 (32.7)	9 (5.7)	.081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	17 (7.5)	16 (7.0)	8.609*	13 (8.2)	3 (1.9)	5.597	12 (7.5)	4 (2.5)	2.179	2 (1.3)	14 (8.8)	4.462	15 (9.4)	1 (0.6)	4.633
	전문대 졸업	17 (7.5)	45 (19.8)		37 (23.3)	8 (5.0)		26 (16.4)	19 (11.9)		14 (8.8)	31 (19.5)		31 (19.5)	14 (8.8)	
	대학 졸업이상	34 (15.0)	98 (43.2)	.014	92 (57.9)	6 (3.8)	.061	67 (42.1)	31 (19.5)	.336	38 (23.9)	60 (37.7)	.107	78 (49.1)	20 (12.6)	.099
자 녀 수	1명	18 (7.9)	38 (16.7)	.723	32 (20.1)	6 (3.8)	1.563	26 (16.4)	12 (7.5)	.224	18 (11.3)	20 (12.6)	4.796	26 (16.4)	12 (7.5)	3.353
	2명	36 (15.9)	80 (35.2)		72 (45.3)	8 (5.0)		53 (33.3)	27 (17.0)		26 (16.4)	54 (34.0)		63 (39.6)	17 (10.7)	
	3명	14 (6.2)	41 (18.1)	.697	38 (23.9)	3 (1.9)	.458	26 (16.4)	15 (9.4)	.894	10 (6.3)	31 (19.5)	.091	35 (22.0)	6 (3.8)	.187

주) 부모교육 경험의 경우 전체 227개의 표본이며, 부모교육 유형/횟수/첫 부모교육 시기/부모교육 적절시기의 경우 각각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159개의 표본임

*p<.05, **p<.01

분석결과, 먼저 연령대와 부모교육의 경험(p <.01), 그리고 첫 부모교육의 시기(p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chi^2=8.609$,

p=.014)에 따라 부모교육 경험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별로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첫 부모교육 시기와 연령대에서 자녀출산 전보다 자녀출산 후에 교육의 경험이 시작된 것은 출산 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1) 전체 응답자의 상관관계 분석

응답표본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분석

구분	A	B	C	D	E	F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적 학대(A)	1				
	정서적 방임(B)	.492***	1			
	가정폭력 노출경험(C)	.476***	.344***	1		
자녀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D)	-.323**	-.304**	-.228**	1	
	자율적-통제적 양육태도(E)	-.115	-.133*	-.070	.361***	1
	전체 양육태도 (F)	-.275***	-.272***	-.188**	.855***	.792**

*p<.05, **p<.01, ***p<.001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방임($r=.492$)과 가정폭력 노출경험($r=.476$)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정-거부적 양육태도($r=-.323$)와 전체 양육태도($r=-.275$)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방임은 가정폭력 노출경험($r=.344$)과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애정-거부적 양육태도($r=-.304$)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r=-.133$) 및 전체 양육태도($r=-.272$)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r=-.228$)와 전체 양육태도($r=-.188$)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각 하위요인인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경험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 및 통제적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태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태도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r=.361$)와 전체 양육태도($r=.855$)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통제적 양육태도는 전체 양육태도($r=.792$)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전체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응답표본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을 구성하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하위요인 3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양육태도 전체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우선적으로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1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3.921	.069		57.140	.000
전체 양육태도	정서적 학대	-.098	.046	-.167	-2.120*	.035
	정서적 방임	-.074	.031	-.174	-2.359*	.019
	가정폭력 노출경험	-.034	.050	-.049	-.672	.503
$R^2 = .102 / \text{Adj } R^2 = .090 / F=8.480 (p=.000)$						

* $p < .05$

분석결과, 전체 양육태도에 대한 각 요인들의 F 통계량은 8.480($p=.000$)으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90으로 원인요인 3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9.0%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의 경험($t=-2.120, p=.035$)과 정서적 방임의 경험($t=-2.359, p=.019$)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예측력은 정서적 방임($\beta=-.174$), 정서적 학대($\beta=-.167$)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의 경험과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4.359	.085		51.443	.000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정서적 학대	-.142	.057	-.191	-2.482*	.014
	정서적 방임	-.100	.039	-.187	-2.585*	.010
	가정폭력 노출경험	-.069	.062	-.080	-1.119	.265
$R^2 = .138 / \text{Adj } R^2 = .126 / F = 11.866(p=.000)$						

* $p < .05$

우선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F 통계량은 11.866($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성립되었으며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126으로 독립변수의 하위요인 3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12.6%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서적 학대($t=-2.482$, $p=.014$)와 정서적 방임($t=-2.585$, $p=.010$)이 각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예측력은 정서적 학대 ($\beta = -.191$), 정서적 방임($\beta = -.187$)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두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적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상수)	3.496	.081		43.389	.000
	정서적 학대	-.041	.054	-.062	-.757	.450
	정서적 방임	-.046	.037	-.096	-1.246	.214
	가정폭력 노출경험	.001	.059	.002	.024	.981

$R^2 = .019 / \text{Adj } R^2 = .006 / F = 1.417(p = .239)$

분석결과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F 통계량은 1.417($p = .239$)으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6.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1)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응답대상자 표본의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특성을 구성하는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 유형, 부모교육 횟수, 첫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인식의 각 하위요인 5가지에 대한 독립변수 중 부모교육 경험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우선적으로 공선성 통계량인 허용오차 0.1을 상회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보다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16> 부모교육 특성이 전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전체 양육태도	(상수)	3.137	.173		18.147	
	부모교육 유형	-.070	.080	-.069	-.879	.381
	부모교육 횟수	.040	.054	.060	.733	.465
	부모교육 시기	-.112	.051	-.167	-2.196*	.030
	부모교육 인식	.139	.042	.264	3.311**	.001
$R^2 = .118 / \text{Adj } R^2 = .095 / F = 5.149(p=.001)$						

주) 부모교육 유형(1회성 특강 0,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횟수(2회 이하 0, 3회 이상 1), 부모교육 시기(자녀출산 전 0, 자녀출산 후 1)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적용함

*p<.05, **p<.01

분석결과 부모교육 유형, 부모교육 횟수,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부모교육의 특성은 F 통계량이 5.149(p=.001)으로 나타나 회귀방정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95로 원인요인 4가지가 전체 양육태도를 9.5%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특성 중 부모교육 시기($t=-2.196$, $p=.030$)가 $p < .05$ 수준에서, 부모교육 인식($t=3.311$, $p=.001$)도 $p < .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예측력은 부모교육을 받은 후 도움정도를 인지하는 부모교육 인식($\beta=.264$)과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한 첫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beta= -.167$)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교육 시기에서는 자녀출산 후 처음으로 부모교육을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 시기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녀출산 후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자녀출산 전 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교육 특성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특성의 하위변인인 부모교육 유형, 횟수, 시기,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의 도움정도를 파악하는 부모교육 인식의 각 하위요인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부모교육 특성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3.446	.225		15.297	.000
	부모교육 유형	-.134	.104	-.103	-1.295	.197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부모교육 횟수	.000	.071	.000	.001	.999
	부모교육 시기	-.123	.066	-.144	-1.850	.066
	부모교육 인식	.144	.055	.215	2.636**	.009

$R^2 = .077 / \text{Adj } R^2 = .053 / F = 3.220(p=.014)$

주) 부모교육 유형(1회성 특강 0,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횟수(2회 이하 0, 3회 이상 1), 부모교육 시기(자녀출산 전 0, 자녀출산 후 1)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적용함

**p<.01

우선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부모교육 특성의 4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F 통계량은 3.220(p=.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나타났다.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053으로 원인요인 4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5.3%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인식(t=2.636, p=.009)이 p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교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교육 특성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특성의 하위변인인 부모교육 유형, 횟수, 시기,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의 도움정도를 파악하는 부모교육 인식의 각 하위요인이 자율-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와 같다.

<표 18> 부모교육 특성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2.822	.195		14.437	.000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부모교육 유형	.009	.090	.008	.099	.921
	부모교육 횟수	.061	.061	.081	.987	.325
	부모교육 시기	-.109	.057	-.145	-1.896	.060
	부모교육 인식	.146	.047	.246	3.068**	.003

$R^2 = .108 / \text{Adj } R^2 = .085 / F = 4.678(p=.001)$

주) 부모교육 유형(1회성 특강 0,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1), 부모교육 횟수(2회 이하 0, 3회 이상 1), 부모교육 시기(자녀출산 전 0, 자녀출산 후 1)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적용함

**p<.01

분석결과,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부모교육 특성을 구성하는 4가지 독립변수(부모교육 유형, 횟수, 시기, 인식)에 대한 F 통계량은 4.67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성립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방정식인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85으로 독립변수의 하위요인 4가지가 자녀양육태도를 8.5%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모교육 인식(t=3.068, p=.003)이 p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9>과 같다.

<표 19>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구 분	세부내용	결과
가설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채택
1-3.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채택
1-4.	연구대상자의 자녀수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5.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6.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방임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계속

구 분	세부내용	결과
2-7.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8.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9.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연구대상자 부모교육 특성은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3.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유형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4.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5.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6.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횟수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7.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8.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9.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시기는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0.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1.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2.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인식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은 연령대와 최종학력,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일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일부 채택 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 자녀양육태도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아 기각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의 경우에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에서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일부 채택 하였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양육태도와의 영향 관계가 통계적으로 성립되지 못하여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부모교육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고 채택하였다. 부모교육 시기의 경우에는 전체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가설과 맞지 않아 기각하였다. 그러나 부모교육 유형, 부모교육 횟수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각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1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27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χ^2 검증, t-test와 ANOVA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고졸 이하의 순서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전체의 75.4%로 다자녀의 비중이 높았다.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0%로 부모교육 형태는 1회성 특강 참여자가 89.3%로 2-3회 이상 지속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는 2-3회(49.7%), 4-5회(19.5%), 1회(16.4%), 6회 이상(14.5%)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출산 후(66.0%)가 자녀출산 전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부모교육 적절시기는 자녀출산 전(78.0%)이 자녀출산 후 보다 높았다. 부모교육 인식정도 항목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의 응답이 88.7%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불참사유로는 ‘시간부족’(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부족’(35.3%)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윤은혜(2013)의 연구와 정인오(1993)의 부모교육 참여 후 도움정도를 알아본 결과와 불참이유인 ‘시간부족’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교육 불참이유의 기타의견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부모교육을 받고 싶어도 자녀를 돌봐야 하고 여유가 없다는 의견과 부모교육 또한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 혹은 교육이므로 각각의 경험을 토대로 훈육을 하되 강요하거나 부모에게 주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자녀양육태도의 기술통계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정서적 방임,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노출경험 순서로 나타나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정서적 방임과 자녀수에 따른 전체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는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에 따른 부모교육의 경험 그리고 첫 부모교육의 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에 따른 부모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집단별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중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방임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에서 정(+)¹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는 부(-)²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방임은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정(+)¹의 상관관계,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및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²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전체 양육태도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섯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양육태도에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전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에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각 하위요인이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피학대 경험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부정적 상관을 보인 김복자(2016)의 연구와 아동기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양육자의 거부적, 통제적, 비합리적, 비성취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승주(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여섯째,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교육 특성 중 부모교육 인식과 부모교육 시기의 순서로 전체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인식은 전체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 시기가 전체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출산 후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자녀출산 전 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교육의 유형과 횟수는 자녀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이재림 외(2013)의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회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부모교육 인식이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들의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교육 불참사유를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시간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먼저 제주도내 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인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떠한 종류와 유형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도심에 비해 읍·면 지역이 정보와 교육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도내의 모든 지역에 교육정보 제공은 물론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개입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탐색하고 현재의 모습과 내면을 성찰하며, 자신이 겪은 학대 후유증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가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교육을 받는

적절한 시기가 출산 전이라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비롯한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더불어 책임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인대상으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혼인의 단계부터 자녀의 양육과 보육 등 아동수당을 받는 시점, 직장인의 법정 필수교육 등 아동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부모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협의이혼 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는 의무상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자녀최우선의 결정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차원에서 아동인권, 아동학대예방 등 합의된 교육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종교기관의 성직자, 수도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직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더불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근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요보호 아동을 발견하기 쉬울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내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제주특별자치도, 2018)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

편적인 복지이며 아동양육의 주체는 국가라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제주지역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지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부모의 피학대 경험과 현재 자녀양육태도에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기 시절을 기억하며 기억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의 일부만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내 자녀양육문제를 노출 시킬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증조사 등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애(2010). 부모교육 참여가 자녀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기숙·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고경필(2017). 유아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433-459.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후순(1986). 『유아교육학개론』. 서울:학문사.
- 곽영호·김기현·염동훈·장화정·장혜인·정진희·황준원(2015).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 하우
- 국성민(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학지사.
- 권영임(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아동교육, 20(2), 85-96.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125-142.
- 권지은·황순택·이승복(2012).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 감정표현 불능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1(1), 75-87.
- 김경숙(2008).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2003). 상호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자아개념 및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길숙(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1.
- 김미숙(2013). 부모교육 방법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복자(2016). 양육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미·남진열(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상언(2015). 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2(2), 19-29.
- 김선미(2015). 부와 모 간의 양육태도·훈육방식·유아문제행동 인식 차이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2012). 부모교육 워크숍을 통한 부모양육태도 변화가 자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2017).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에스더(2018). 모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아동의 내재적·외현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정·김득성(2006).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41-153.
- 김윤희(2017).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 초기 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김진숙(2008).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05-1520.

- 김은주·조경미(2011). 간호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및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97-109.
- 김은주·서영희·임재덕(2006). 한국 속담에 나타난 전통 아동교육관 연구. 아동교육, 15(4), 37-55.
- 김인순(2002). 가정환경적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장용언·이승준(2013).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5:157-183.
- 김재엽·이지현·정윤경(2007). 부부폭력 가해자의 성장기아동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 부모역할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91-312.
- 김재엽·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7-62.
- 김정옥·장덕희(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53-186.
- 김지연(2001).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2006). 유아의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환·한수미(2015). 어릴 적 외상 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7(2), 251-274.
- 김현정(2002). 가족관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인·신민섭·김은정(2012).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53-380.
- 김홍석(2017).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희경(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서울
- 나은숙·정익중(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 아동학회지, 28(4), 35-49.
- 노충래·김현경(2004). 중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여부의 공존성 및 학교폭력 가해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사회복지연구, 5:79-107.
- 모상미(2014).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옥(2013).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 연구 : 상담위탁 보호처분 받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강지현(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 박언주(2013). 가정폭력노출 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의 변화과정. 학교사회복지. 26:153-176.
- 서인원(2015). 가정폭력 중복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 서울시 OO구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혜·주경숙(2007). 초산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태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1), 1-9.
- 송은주(2006). 초임부의 수용-거부양육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호경(2004). 외동이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복기·이성진(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 신성희·원정숙(2009). 학령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492-500.
- 신용주·김혜수. 2002.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페어런팅 :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APT)에 기초한 효율적 부모교육 모형의 모색. 한국교육, 29(1), 105-122.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 아내구타 피해여성들

- 위한 쉼터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6(1), 67-85.
- 제주특별자치도(2018). 아동정책시행계획.
- 대한의사협회(2006).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지침서.
- 안동현·강지윤(2003).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경정신의학, 42(1), 14-33.
- 안동현·장화정·이영애·홍강의·이재연·이양희·조홍식·곽영(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과 권리, 7(1), 1-20.
- 안유자(200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2007). 복합외상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26(1), 105-119.
- 양명재·방희정(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육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 양미진·남은영·이수림·이자영·허자영(2010). 저소득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8(1), 113-141.
- 양인화(2016). 아동학대 배경변수와 반응변수의 메타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원·전명희(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과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소, 6: 127-152.
- 여순화(2018).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변화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어찌다 부모’들의 시행착오와 반성 그리고 깨달음.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혜정(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희(2002).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선(1990). 사회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Program 개발에 관한 연구 :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요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혜(2013).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 청소년기 자녀를

- 둔 부모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주·강신영·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4(5), 761-770.
- 윤혜영(2006). P.E.T.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증진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김한나(2015).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2), 309-333.
- 이성복·신유림(2010).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 경험 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73-80.
- 이세현·양인화·박병기(2018). 부모 및 자녀의 배경변수와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7(3), 71-93.
- 이 숙(1988). 『부모교육』. 서울:학지사.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희·고인숙·심정선(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승주(2010). 기혼 직장인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양육신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유서구(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청소년패널자료(KYPS)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 이영석·김숙자·이향재·최민수(2005). 『현대부모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경(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1995). 사회교육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부모 역할 인식 및 교육 요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황정임·최지현·조윤주(2017).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재림·김지애·차동혁·이향희(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27-47.
- 이정희(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민·송승민·도현심(2011). 조부모 및 부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85-97.
- 이진선·정문자(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의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 이지윤(201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발달 및 기본생활습관 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류현정·김지혜(2007). 집단상담 :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연구, 8(2), 533-547.
- 이호균·장화정·유선영(2001).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아동, 부모, 교사에게 대한 교육프로그램. 아동과 권리, 5(1), 23-33.
- 장영심·조영숙(2014).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45-163.
- 장은주(2017). 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2000).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131-15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정교영(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정(2016).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기체계 손상과 부적응적 분노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숙(2003).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오(1993). 사회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조경란·함경애·천성문(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2), 369-395.
- 조성상·이서원(2006). 청소년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17-131.
- 조용조(2012).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복피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조남홍(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조형숙·김명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상태, 자기분화,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 교육학논집 17(3), 271-293.
- 최옥순(2003). 성인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우미(2015). Gottman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16). 부모교육과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수홍·장문선(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한지은(2013). 정서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1:23-45.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의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기순(2008).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49-168.

Allen, J. G.(2008).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

Anzieu, D. (2008). 피부자아. *The Skin Ego*. (권정아, 안석 옮김). 서울: 인간희극. (원서 1995년)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37.

Belsky, J., Sysko, H. B., & Vondra, J. (2006).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Parenting* (pp. 51-88). Routledge.

Belt, W., & Abidin, R. R.(1996). The relation of childhood abuse and early parenting experience to current marital quality in a nonclinical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0(11), 1019-1030.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Stokes, J., Handelsman, L., Medrano, M., Desmond, D.,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 Bolger, K. E., & Patterson, C. J. (2001).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internalizing problems: Perceptions of control as mediators and moderato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13-940.
- Bowlby, J. (1951).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Vol. 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3), 331-341.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
- Burlingham, D., & Freud, A. (1944). Infants without families.
- Buzawa, E. S., Buzawa, C. G., & Atark, E. D.(2017).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5th ed.). Los Angeles, CA: Sage.
- Caples, H. S., & Barrera, M. (2006). Conflict, support and cop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degrading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4), 599-611.
- Claussen, A. H., & Crittenden, P. M. (1991).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Relations among typ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5(1-2), 5-18.
- Coleman, R. W., & Provence, S. (1957). Environmental retardation (hospitalism) in infants living in families. *Pediatrics*, 19(2), 285-292.
- Culp, R. E., Watkins, R. V., Lawrence, H., Letts, D., Kelly, D. J., & Rice, M. L. (1991). Maltreated children's language and speech development: Abused, neglected, and abused and neglected. *First Language*, 11(33), 377-389.
- Devanarayana, N. M., Rajindrajith, S., Perera, M. S., Nishanthanie, S. W., Karunanayake, A., & Benninga, M. A. (2014). Association between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eases and exposure to abuse in teenagers.

Journal of tropical pediatrics, 60(5), 386-392.

- Edleson, J. L. (1997). Problems associated with children's witnessing of domestic violence. Harrisburg, PA: VAWnet, a project of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 Erickson, M. F., & Egeland, B. (1987). Psychologically unavailable caregiving: The effects o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 Everstine, DS & Everstine, L.(1993). *The Trauma Response: Treatment for Emotional Injury*. New York: Norton, pp. 227.
- Fantuzzo, J. W., & Mohr, W. K.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21-32.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Ov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23.
- Finzi-Dottan, R., & Karu, T. (2006). From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to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A path mediated by immature defense mechanism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8), 616-621.
- Fox, L., Long, S. H., & Langlois, A. (1988). Patterns of language comprehension deficit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3(3), 239-244.
- Gowan, J. (1993). Effects of neglect on the early development of children: Final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Graham-Bermann, S. A., & Levendosky, A. A. (1997). The social functioning of preschool-age children whose mothers are emotionally and physically abused. *Journal of Emotional Abuse*, 1(1), 59-84.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1), 215-230.
- Hughes, H. M., Parkinson, D., & Vargo, M. (1989). Witnessing spouse abuse and experiencing physical abuse: A "double whamm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2), 197-209.
- Iacoboni, M. (2009). 미러링 피플 (김미선역). 서울: 갤리온. (원서출판 2008).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2013). The battered-child syndrome. In C. Henry Kempe: *A 50 Year Legacy to the Field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23-38). Springer, Dordrecht.
- Kwok, S. Y., Chai, W., & He, X. (2013). Chil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China. *Child abuse & neglect*, 37(11), 986-996.
- Laner, M. R., & Thompson, J. (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3), 229-244.
- Leon, K., Jacobvitz, D. B., & Hazen, N. L. (2004). Maternal resolution of loss and abuse: Associations with adjustment to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5(2), 130-148.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67.
- Lyons Ruth, K., Connell, D. B., Grunebaum, H. U., & Botein, S. (1990). Infants at social risk: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support services as mediators of infant development and security of attachment. *Child*

- development*, 61(1), 85-98.
- Markward, M. (1997).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78(1), 66-70.
- McGee, R. A., Wolfe, D. A., & Wilson, S. K. (1997). Multiple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ts'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1), 131-149.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Keefe, M. O. (1994).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Families in Society*, 75(7), 403-417.
- Rajindrajith, S., Devanarayana, N. M., Lakmini, C., Subasinghe, V., de Silva, D. H., & Benninga, M. A. (2014).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constipation: a school-based survey using Rome III criteria. *Journal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and nutrition*, 58(4), 486-49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Salzinger, S., Feldman, R. S., Ng-Mak, D. S., Mojica, E., & Stockhammer, T. F. (2001). The effect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and affective status: A model of cognitive and behavioral processes explaining the associ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805-825.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2).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the early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415-435.
- Stephenson Smith, S. (2003). *The new international webster's comprehensiv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deluxe encyclopedic edition* (No. REF 428.03 STE. CIMMYT).
- Lyle, M., Spencer, S. M.,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United States: *John Wiley & Sons*.
- Steels, B. (1980). Psychodynamic factors in child abuse. In C. H. Kempe, & Helfer, R. F (eds.), *The Battered Child* (3rd ed), 49-87.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alley, N. J., Fett, S. L., Zinsmeister, A. R., & Melton, L. J. (1994). Gastrointestinal tract symptoms and self-reported abuse: a population-based study. *Gastroenterology*, 107(4), 1040-1049.
- Voorthuis, A., Bhandari, R., Out, D., van der Veen, R.,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14).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child abuse potential: Temperamental sensitivity as moderato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9(7), 749-756.

SITE

-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www.naver.com)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부모교육 특성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지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부모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부모님의 도움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 남 진 열

연구자 : 이 태 립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I. 다음은 귀하께서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없음	드물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I-1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 멍청이, 똥맹이)	0	1	2	3
I-2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0	1	2	3
I-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I-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 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0	1	2	3
I-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I-6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0	1	2	3
I-7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I-8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0	1	2	3
I-9	우리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0	1	2	3
I-10	우리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0	1	2	3

II. 귀하께서 만 18세 이전 부모님들 사이에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래 문항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없음	드물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I-11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을 했다	0	1	2	3
I-12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찼다	0	1	2	3
I-1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0	1	2	3
I-14	물건(허리띠,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0	1	2	3
I-15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0	1	2	3

[자녀양육태도]

Ⅲ. 다음은 평소 귀하께서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신 후, 부모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Ⅲ-1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자녀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준다	1	2	3	4	5
Ⅲ-2	손님이 계실 때 아이가 풀칠하기, 자르기 등을 도와달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도와준다	1	2	3	4	5
Ⅲ-3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1	2	3	4	5
Ⅲ-4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	1	2	3	4	5
Ⅲ-5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1	2	3	4	5
Ⅲ-6	자녀에게 께안거나 쓰다듬는 등 애정표현을 곁으로 잘 표현한다	1	2	3	4	5
Ⅲ-7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한 일(그림, 만들기 등)에 관심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Ⅲ-8	자녀가 있는 것이 꼭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을 해준다	1	2	3	4	5
Ⅲ-9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하며 도움을 준다	1	2	3	4	5
Ⅲ-10	자녀에게 문제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을 하고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Ⅲ-11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언가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 둔다	1	2	3	4	5
Ⅲ-12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독서나 강연회 등에 참석한다	1	2	3	4	5
Ⅲ-13	자녀가 다른 어린이 또는 어른들과 잘 사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Ⅲ-14	자녀가 할 수 있다면 힘든 일도 안스럽지만 혼자서 하게 한다	1	2	3	4	5

	문항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Ⅲ-15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줄 용의가 있다	1	2	3	4	5
Ⅲ-16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1	2	3	4	5
Ⅲ-17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	1	2	3	4	5
Ⅲ-18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다	1	2	3	4	5
Ⅲ-19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할 때 참으려 하다가 와락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1	2	3	4	5
Ⅲ-20	자녀의 행동 및 태도 중 고쳐야 할 점이 많다	1	2	3	4	5
Ⅲ-21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5
Ⅲ-22	직장이나 일을 하다가 권태롭거나 지겹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1	2	3	4	5
Ⅲ-23	자녀가 잘못된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Ⅲ-24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Ⅲ-25	자녀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모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	1	2	3	4	5
Ⅲ-26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 한다	1	2	3	4	5
Ⅲ-27	자녀가 사귀는 친구나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	2	3	4	5
Ⅲ-28	외출할 때 웬만한 곳은 아이를 데리고 간다	1	2	3	4	5
Ⅲ-29	자녀가 정해놓은 취침시간을 어기면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엄격히 한다	1	2	3	4	5
Ⅲ-30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준다	1	2	3	4	5
Ⅲ-31	자녀가 아플 때에는 모임에 참여할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아이와 함께 지낸다	1	2	3	4	5

[부모교육]

IV. 다음은 부모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IV-1. 귀하는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 7번으로 ② 있다()
IV-2. 부모교육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1회성 특강() ② 2~3회기 이상의 지속적 프로그램()
IV-3.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7회() ⑤ 8회 이상()
IV-4.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① 결혼 전() ②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직전() ③ 자녀출산 후()
IV-5. 부모교육에 참가하시고 난 후 자녀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IV-6. 부모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 전() ②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전() ③ 자녀출산 후()
○ 1번 응답에서 '①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만 체크하세요!
IV-7. 귀하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정보가 없어서() ④ 비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 기타()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on Child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in Jeju Area.

Lee, Taelim

Academic Advisor Nam, Chin-Ye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on their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in Jeju area.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for 227 parents of children who we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And children trauma questionnaire scale, child rearing attitude scale, and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4 items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d ANOVA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motional neglect and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Also,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parent edu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 education experience and first parent education period according to ages.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a parent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al level.

Second, emotional abuse among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neglec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utonomous-controlled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parenting attitude.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parenting attitude.

Third,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had negative influences on overall parenting attitude and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many experiences of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showe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s. However,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 rearing attitude.

Forth, parent education perception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arenting attitude, affection-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utonomous-controlled

parenting attitud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parent education, the more affectionate and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when parents were educated, the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overall parenting attitude. This suggests that parental education before childbirth rather than after childbirt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 rearing attitude.

In conclusion, the hypothesis that parental emotional traumatic experiences have a negative effect on child rearing attitudes and that parental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hild rearing attitudes is partially adopted.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 welfare proposal and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child rearing attitude, parent education.